

여자 평상복 치마, 저고리 디자인

曹 五 順

국립장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복을 여성들의 평상복으로 입기에 알맞은 디자인으로 기획하고 실물을 제작하여 일정기간 입은 후 그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자는 2곳의 여성회관과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20~60대 학생 50명으로 하였다. 시작 기간은 2000년 4월~9월 6개월로 하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1차에서 그룹 토론을 하고 2차에서는 개인 면접, 3차에서는 전체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소재는 광목과 무명으로 한정하고 경제성과 염색 기술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접 치자 염색을 하였다. 디자인은 치마허리 부분을 랩(lap)형과 절충하여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저고리는 목판깃을 달고 옆구리에서 우입형태로 여미면서 소매는 중간 넓이로 하고, 좁고 짧은 고름을 달았다. 홀치기 염의 문양과 조각잇기의 문양으로 나만의 개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연령층에서 가사 노동을 위시한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것으로 디자인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치마허리 치수의 자유조절로 입고 벗기에 편하였다고 나타났다.

둘째, 염색과 조각잇기의 문양으로 나만의 개성미를 연출할 수 있어 좋았다는 만족도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셋째, 상의의 치자 천연 염색으로 인한 자연 친화력적인 면과 인간미의 표출과 건강 위생문제 등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았다. 그러나 염착 견고성이 떨어져 세탁에 약하고 탈색이 되는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더 높았다. 40대 이상은 “물을 깨워” 사용하겠다는 지난 세대에 대한 향수와 여유를 보였다. 천연 염색시의 염료 고착 문제나 염료 선택을 더 보완하거나 평상복의 세탁을 위해서는 화학 염색 천을 선택하는 것도 경제적이고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이 결과는 한복 패션 산업체의 디자인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